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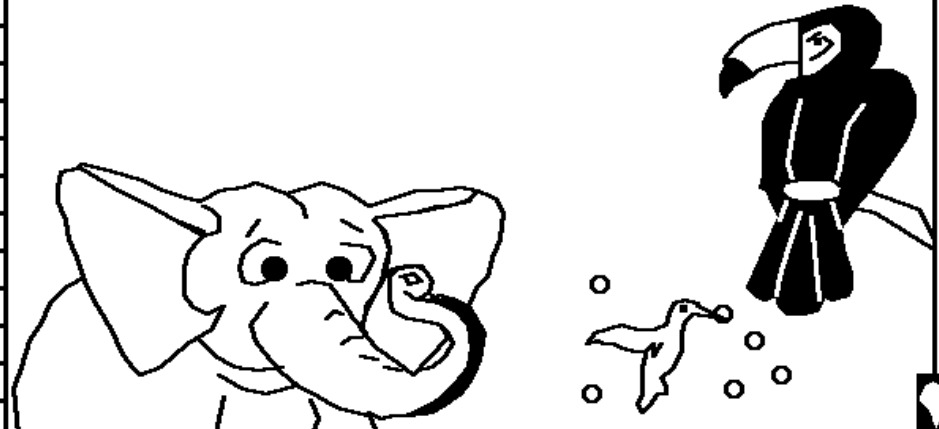


21



22

#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창세기 1-2장에 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저자: Edward Hughes  
삽화: Byron Unger; Lazarus

번역: Eun Ji Shim  
각색: Bob Davies; Tammy S.

60 의 이야기 1

M1914.org

Bible for Children, PO Box 3, Winnipeg MB R3C 2G1 Canada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것들을 해 온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댓가는 사망입니다.

한국어

Korean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댓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죄로부터 돌아서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것을 믿습니다. 제발 제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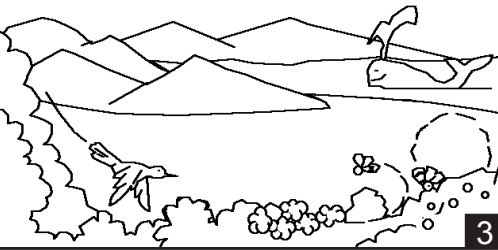
성경을 읽고 예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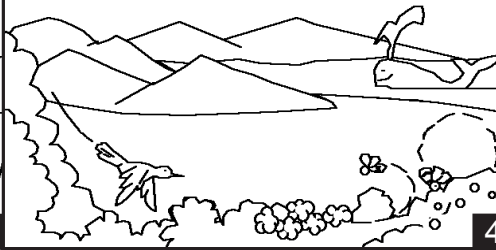
2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경이로운 것들로 채워진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언덕과 초원, 향기로운 꽃들과 높은 나무들, 밝게 빛나는 깃털을 가진 새들과 웅장거리는 벌들, 바다 속에서 헤엄치는 고래들과 매달매달한 달팽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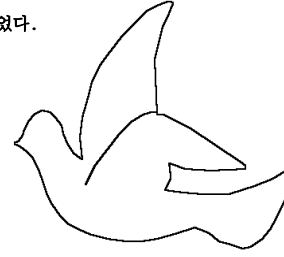
3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4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기 전인 태초에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이나 장소나 어떠한 것들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빛과 어둠도 없었다. 위와 아래도 없었다. 어제와 내일도 없었다. 시작이 없는 하나님 만이 계셨다. 그 후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



5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구는 형태와 공간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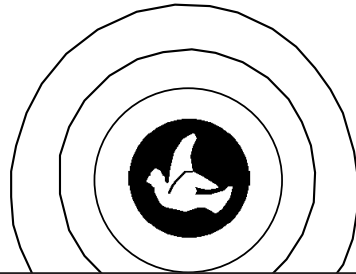
6

그리고 어둠이 심연에 가득 차 있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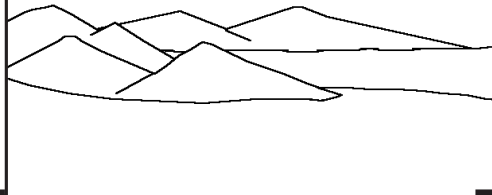
7

그리고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그 저녁과 아침이 첫 번째 날이었다.



8

둘째 날에 하나님이 대양, 바다, 그리고 호수의 물을 하늘 아래로 가져왔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마른 땅이 나오게 하라." 고 말씀하셨다.



9

하나님께서 또한 풀들과 꽃들, 관목들과 나무들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났다.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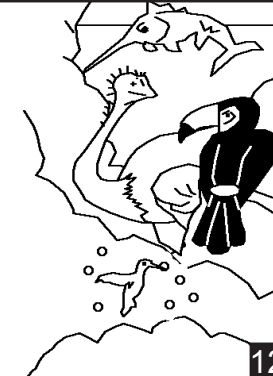
10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과 아무도 셀 수 없을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다.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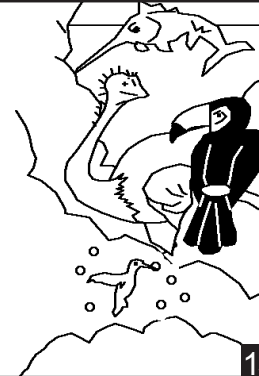
11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들과 물고기들과 새들은 그 다음으로 만드셨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큰 황새치와 작은 경어리들, 긴 다리의 타조들과 행복한 노래하는 작은 새들을 만드셨다.



12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만들어 지구의 물에 채우셨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새들을 만들어 땅과 바다와 하늘을 즐기게 하셨다.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었다.



13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땅에 살아있는 생물들, 모든 동물과 곤충들과 파충류가 있으라." 고 말씀하셨다. 모든 동물과 곤충과 파충류가 땅에 나왔다. 땅을 떠들썩하게 하는 코끼리들과 비단 비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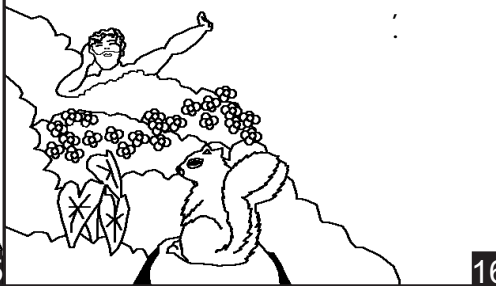
14

장난을 좋아하는 원숭이들과 재치 없는 악어들, 몸부림치는 벌레들과 불이 축 쳐진 다람쥐들, 목이 긴 기린들과 그르렁거리는 고양이들.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그날에 만드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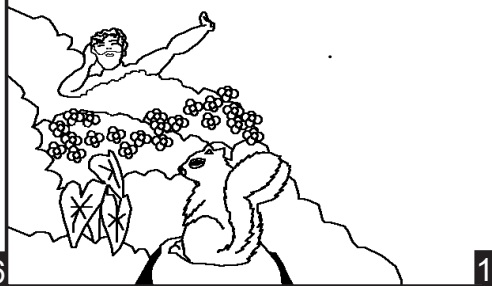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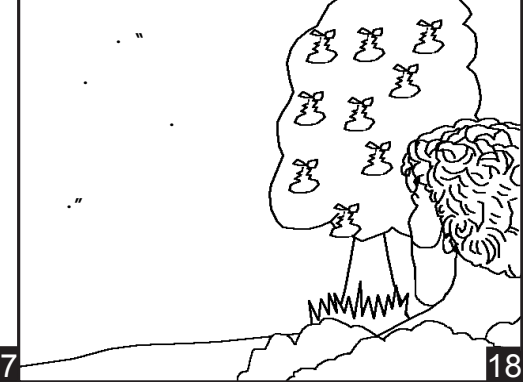
15



16



17



18